

# 나주시, '2026년 주민과의대화' 20개 읍면동 순회나서

## 1월 7일부터 20일까지 현장 소통 강화... 시민 의견으로 시정 방향 설계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시정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주민과의 대화'를 1월 7일부터 20일까지 20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개최한다.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새해 첫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지역별 현안과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했다.

남평읍을 시작으로 관내 20개 읍면동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일정에서는 '인공태양 연구 시설 구축', '2026 나주방문의 해' 등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 사항과 지역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창의

적인 정책 아이디어 등을 폭넓게 수렴해 실질적인 개선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나주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공감하며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로 연결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전남 함평군이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업무를 기관장 반부패·청렴 서약으로 시작하며, 청렴 군정의 합찬 포문을 열었다.

함평군은 2일 함평군수의 반부패·청렴 서약을 시작으로 군 모든 공직자가 청렴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나섰다 이날 밝혔다.

청렴 서약은 공직자가 청렴 실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분위

한 해의 시작은 청렴으로... 함평군, 새해 청렴서약서 서명

### 청렴 리더십으로 청렴도 2등급 목표 기반 마련

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서에는 공무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반부패·청렴 관련 기본 원칙과 행동 기준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공직자의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함평군은 청렴 실천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의 실천 과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추진한 '청렴 SOS 프로젝트'를 비롯한 조직 쇄신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5년 함평군은 청렴 SOS 프로젝트를 중

심으로 공직 신뢰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전남도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상(2위)을 선정됐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4년 대비 청렴도를 2단계 향상하며 종합 3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함평군은 청렴 행정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어가고 있어, 올해 추진될 청렴 시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함평/전광훈 기자

### 진도군, 2026년 예산 5,109억 원 '역대 최대' 편성

전년 대비 17.1% 증가... '5천억 원대 재정 운영' 본격화

진도군이 2026년도 예산으로 5,109억 원을 편성하며, 군 재정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는 2025년도 당초 예산인 4,362억 원보다 747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17.1퍼센트(%)에 달한다.

진도군은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5천억 원대 재정 운영 체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진도군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5,0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5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97억 원으로 2억 원이 늘었다.

분야별로는 ▲농림수산분야 1,193억 원(23.8%) ▲사회복지분야 1,104억 원(22%) ▲문화관광분야 491억 원(9.8%) ▲환경분야 371억 원(7.4%) 등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창, 염대, 심 일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125억 원) ▲세방낙조 아트문화 관광명소 조성사업(45억 1천만 원) ▲진도항 배후

지 공공하수처리 2단계 사업(35억 원) ▲간호복지인력 기숙사건립(29억 3천만 원)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사업(29억 3천만 원) ▲진도농수산물 유통물류허브센터조성(24억 원) ▲나리항 정비사업(21억 3천만 원) ▲죽향도 선착장 보강사업(12억 원) 등이 반영됐다.

군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군민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경제와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했다"라며, "사상 첫 5천억 원 재정 시대를 맞은 이번 예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재정을 꾸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2025년도 최종예산 6,170억 원 가운데 1,950억 원을 농림수산분야에 투입해 3년 연속으로 전체 예산의 30퍼센트(%) 이상을 농수산분야에 편성해 왔다.

진도/오재명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카메라 뉴스



####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2026년 1월 1일 정식 개원!

영광군은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추모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한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이 약 2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적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공설추모공원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70일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시설 전반에 걸친 세밀한 점검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동선 체크 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군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최적의 환경을 갖춘 만큼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이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을 평온하게 모시고 유족들에게는 진정한 위로를 전하는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이현식 기자



#### 구례군 화엄주차장 무료 개방 운영 시작

전남 구례군은 2026년 1월부터 화엄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 개방은 구례군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조치로, 지리산국립공원의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화엄사 일대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특히 관광 시즌에는 주차공간 문제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례군은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와 협력하여 화엄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결정했다. 구례군은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더 많은 관광객들이 구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례/한정호 기자



#### 장흥군, '청렴 서약'으로 2026년 새해 힘찬 출발

장흥군이 1월 2일 군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공직자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새해를 맞아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식을 다시금 되새기고,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 운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성 장흥군수는 직접 청렴서약서를 낭독하며 청렴 실천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흥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아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청렴도 중위권을 회복했다.

이번 서약식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 군정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의지를 다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졌다. /장흥군 제공



##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